## 잘못 먹으면 죽음…'리치 포비아' 확산

뷔페·레스토랑 등 단골 메뉴 인도·중국서 아동 집단사망 저혈당 유발 성분 다량 함유 식약처 공복 섭취 자제 요청

"리치가 그렇게 위험한 과일인지 몰랐어 요. 우리 딸이 좋아해서 패밀리레스토랑에 가면 빼놓지 않고 먹었던 건데…."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김희운(여・ 4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열대과 일 리치(Litch·사진)를 잘못 먹으면 사망 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화들짝 놀랐다. 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리치 로, 패밀리레스토랑을 가면 혼자 5~6개는 기본으로 먹어왔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김씨는 "여름이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냉동



된 리치를 구입해 간식으로 먹여왔다"며 "어 린 아이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무서워서 먹일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학무보들 사이에서 때아닌 '리치 포비아'(공포증·Phobia)가 확산하고 있 다. 최근 인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어린이 들이 리치를 먹은 뒤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열대 과일인 리치를 덜 익은 상태로 먹으면 저 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리치에 함유돼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과 'MCPG' (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이 저혈당 증상 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해당 성분이 2~3 배 높게 함유돼있는 탓에 식사를 하지 않 은 공복 상태에서 다량 섭취하게 될 경우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의식 불명을 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인도에서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0 여 명이 뇌 질환으로 집단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어린 이가 더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 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공복에 리치를 섭취 한 어린이 1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망한 어린이들은 급성뇌염증후군 (Acute Encephalitis Syndrome)과 관 련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

분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며 혼수상태에 빠 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을 비 롯해 뷔페, 호텔 레스토랑 샐러드바 등에 는 리치가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고 올라 오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 냉동된 리 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대책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리치에 들어 있는 MCPG 성분이 급성뇌염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성인은 하루 10개 이상, 어린이는 하루 5개 이상 먹지 말라"며 "리치뿐 아니 라 람부탄, 용안 등에도 MCPG 성분이 함 유돼 있으니 동남아 여행시 현지에서 덜 익은 리치, 람부탄, 용안 등을 섭취하지 말 라"고 당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사립 중등교사 임용 공동전형 광주교육청 8월까지 수요조사

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광주시사학법인협의회와사 립중등교사 채용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를 위해 사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동전형 을 위한 업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이 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 도 공동전형에 참여를 희망 하는 학교법인

함께 추진해 시교육청이 시험 문제 출제, 평가 등 채용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원 수요 조사를 마친 뒤, 10월 공동 전형 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후 12월 14일 시교육청 주관으로 1차 시험을 진행한 뒤 5~6배수 합격자를 해당 법인에 추천, 2020 년 1월 2차 수업실연과 3차 심층면접을 통 해 법인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2·3차의 전형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5명 중 1명 이상은 교육청에 각각 추천한다.

광주에서는 공동전형을 통해 2018학년

하지만 사립학교의 기간제 비율이 2017 년 20.2%, 2018년 23.5%, 2019년 26.9% 로 해마다 증가해 담임과 부장교사를 기간 제 교원으로 배정하는 등 학사운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 오늘의 날씨 05:18 21:29 19:50 달짐 06:44 곳곳에 소나기 서울 강릉 $\Box$ 대기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다. $\triangle$ $\bigcirc$ 광주 구름많음 19/29 보성 청주 구름많음 19/28 19/26 순천 대전 $\overset{\circ}{\Box}$ 구름많음 18/28 맑음 19/26 영광 구름많음 18/29 진도 맑음 18/26 나주 대구 전주 18/26 전주 구름많음 | 18/28 $\triangle$ 구례 18/30 군산 구름많음 18/26 소나기 $\bigcirc$ 부산 강진 18/28 남원 소나기 | 18/28 Ö 18/24 해남 |17/27||흑산도| 장성 구름많음 17/29 ◇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0.5 ◇ 생활지수 남부 먼바다 동~남동 0.5~1.5 북동~동 0.5~1.5 동~남동 0.5 북동~동 0.5 경고 식중독 ◇ 물때 매우 높음 만조 간조 자외선 08:48 03:38 20:42 15:26 보통 04:17 10:07 미세먼지 16:04 22:49 ◇ 주간 날씨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呇 19/29 19/29 20/28 20/27 19/28 20/29 20/29

# 10월 중 공동전형 요강 발표

광주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사립 중등 교사 임용시험 공동전형 수요조사에 나선

중심으로만 공동전형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전형은 여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시교육청은 오는 8월말까지 법인별 선발

도 6개 법인 15명, 2019학년도 6개 법인 19명의 사립학교 신규교사가 선발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남구 장마철 앞두고 가로수 고사목 제거

광주시 남구가 강풍과 비를 동반한 본 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위협 요인이 있 는 가로수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가로수 가운데 태풍시 쓰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교 통 신호등과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가로 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이번 수목 정비작업은 남구 대남대로, 독립로, 군분로 등 15곳에서 다음달 14 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되는 가로수는 성장 속도가 빠른 은행나무 등 2종 154그루이다. 또 메타세 쿼이아를 비롯한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등 8그루도 주민 안전을 위해 벌목된다.

남구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최대한 정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라며 "정비작업 으로 보행 ·차량 통행에 불편이 따르더라 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건강보험 도입 42주년…27일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 역사회의 건강보장분야 정책 및 현안 이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019년도제2회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는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역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질병 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장을 마련,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2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는 건강 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

주년을 기념해 '고령화 시대의 전남도 노 인건강증진 전략(부제:다가오는 초고 슈 등을 주제로 오는 27일 오후 2시~4시 명화 시대, 준비하는 전남)'이라는 주제 로 전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가 발제를 하고, 분야별 전문가 6명의 패 널이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할

> 광주지역본부 이원길 본부장은 "지역 사회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 천적 개선방안 도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일본 뇌염 모기를 잡아라"** 18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임동 인근 광주천 일대에서 전염병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빨간집모기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경감 근속승진 비율 30%→40%로…경찰 인사 적체 숨통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 경찰위원회 심의 통과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공 무원 가운데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인원 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 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근속승진이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자 동으로 승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속승 진을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 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 감 10년이 걸린다.

경위까지는 100% 근속승진이 가능하 지만, 경감으로 승진할 때는 대상자의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어 근 속승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

> 또 압정형 직급 구조와 과도한 인사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간급인 경감 근속 승진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 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전국대표 1544-1926 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